

기고

소명의식 가져야 좋은 교사다



전상훈
광주첨단고등학교 교장

‘행복의 정석’을 쓴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직무(job)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는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일을 하며, 삶의 보람과 관련되는 열정과 재미는 직무 이외의 다른 것에서 추구하는 타입이다.

둘째는 경력(career)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는 명성과 권력과 출세를 위해 일을 하며, 일을 개인의 발전과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소명(calling)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신의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

며, 일을 통해 개인적 삶의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낀다.

물론 세 가지 관점이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람마다 개인적 가치관이 다른 까닭에 꼭 어느 관점이 옳고 그르냐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까지 이 세 가지 관점이 가치관단 없이 두루 통용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파생시키게 된다. 점에서 우리 교육자들의 바람직한 직업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교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 중의 하나이고, 선생님도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실존적 존재인 까닭에 가르치는 일을 벌여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본다 하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문제는 교사가 지나치게 금전적 보상을만 염두에 두고 일을 하다 보면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직업에 대한 열정이나 애착도가 달라져서, 지나칠 경우 학생을 도구화하고 교육을 수단화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기에 이른다. 이 때문이다.

경력의 관점에서 교직을 보는 것 또한 마

찬가지다. 교직을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현시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아이들을 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눈치와 요령으로 현상을 타파하며 명철보신에 급급할 터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일이 전문적 지식, 확고한 소신, 교육적 철학도 없이 그냥 누구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 하찮은 물건 다부듯, 아니면 길가의 돌맹이를 발로 차는 일만과 쉬운 일이라면 날마다 수지타산을 맞추며 개인적 명예와 출세를 꿈꾸어도 좋으리라.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스승이 없고, 교실에 스승을 우러러보는 학생이 없다고들 한다. 혹시 소명의식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적지 않나 보니, 인격적 감화를 받을만한 가르침을 찾아보기 힘들고, 학교가 그저 수강료의 지불과 수업으로 거래가 끝나는 학원과 다를 바 없어, 아니면 그만도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학교에서 맺어지는 사제간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만남으로써, 인격적 교감과

정신적 상호작용 없이 단순한 제도적·관습적 관계의 틀 속에서 만나 피상적 지식만을 주고받는다면 어찌 그것을 진정한 배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나친 이상론일지는 몰라도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예나 지금이나 혼과 혼의 만남이어야 하며, 사랑과 존경의 만남이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교권이 살고, 학교가 산다.

누군가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크개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고, 작게는 아이들의 행복과 삶의 성과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가르침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선생님 없이 좋은 교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고금의 진리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시 한 번 소명의 체적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때 교육의 미래는 환층 밝아질 것이다.

社說

순천정원박람회 성공, 사후 활용이 관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목표 관람객 400만 명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순천만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부각시켰는데 의미가 크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화해능가의 소득 향상, 시민 참여의식 제고 등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개장 176일째이자 폐막 8일을 앞둔 지난 12일 오후 4시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300만 명을 넘어지기까지 93일이 소요되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 등 과제 또한 수도득하다.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가 매년 2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낼 것이란 지적처럼 박람회장 활용이 끝났던 지방재정을 쪼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박람회장 활용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시가 지역형태로 운영하다 최종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남기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순천만정원원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학교수목원만 정부 지원 대상에 들어있는 만큼 순천만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마스터플랜에는 박람회장 운영으로 연간 27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지출 항목에 인건비 50억 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운영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책 마련은 필수사항이다. 순천시는 박람회장 사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고, 치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CCTV 사생활 침해 역기능도 따져봐야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과 함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내놓은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CCTV 설치 대수’ 현황에 따르면 방법용뿐 아니라 재난 감시·교통 단속·시설물 관리용 등으로 운용 중인 CCTV는 45만여 대에 이른다. 민간부문 등에서 설치한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CCTV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 당하는데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추행 용의자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목한 차량 운전자를 추격전 끝에 붙잡았지만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파악한 CCTV 관련 민원은 6120건으로, 전체 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의 20%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해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도 1798건으로, 지난 2010년 59건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 프라이버시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에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토록 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나 정작 CCTV에 안내문이 붙어 있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CCTV에 찍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국은 안내문 부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이제는 안전등산문화를 만들자



신현이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 수석부회장

IMF의 우울한 시대를 겪어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안 받기 위해 산으로 향했던 발걸음이 점차 산에 대한 매력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등산인구가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했다.

대형시설부터 산악운동을 해왔던 각 대학 산악부와 동문 산악회들이 해외 고산등반과 기술등반을 선도했고 고산등반을 함께 추구하며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온 몇몇의 일반 동호인 산악회가 정기산행을 계속하며

이 지역 산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근래에는 산행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화되어 수많은 산악회가 창립됐다. 근거리 산행에서부터 대형 버스를 이용한 장거리 산행에 이르기까지, 더러는 해외 산행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산악회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각 산악회별로 회원 확보에만 주력하다 보니 역지로 회원으로 가입시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긴다.

이는 사전에 따로 등산의 기초나 상식을 가르쳐 주는 산악회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산행은 ‘그저 산에 오르고 내려가는 단순한 걷기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많은 초보자들이 산악회에 가입하여 몇 차례 함께 산행하면서 안전에 대한 준비보

다는 다른 회원의 복장이나 배낭 그리고 등산용 스틱 등을 비교하여 하나 둘씩 등산 장비를 구매하여 늘려간다. 체력 또한 점차 좋아지니 자신감이 생겨 배낭에는 술과 먹는 음식들을 채워 즐기는 데 주력하니 위험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러는 자만심까지 생겨 산이 마치 육상 경기장인 양 “지리산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화대중주) 몇 시간에 종주하였네” “안가본 산이 없네” 하고 자랑하며 떠든다. 그 사람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산행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무릎관절이나 고관절 이상으로 산은커녕 평지 길을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지난 7월에는 우리나라 등산객들이 일본의 고산을 약전후에 산행하다 불의의 큰 인명사고가 있었다. 등산객 모두 수많은 산에 다녀 산행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다. 만약 그 일행 중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

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각 산악회의 집행부가 산행자를 선택할 때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거나 등반대장이 직접 사전 답사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반해 정작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등산기술 교육과 등산문화 교육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제 각 산악회의 집행부는 매번 산행마다 무사고의 요령을 바라지 말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시켜주어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열중 광주시민을 상대로 시민등산학교를 열고 있는 (사)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은 누구나 단계로 신청하면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시켜 줄 준비가 되어있으니 (사)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기고

구제역 파동 벌써 잇었나



김봉택
함평군 축수산과장

지난 2010년12월28일 최초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소 15만 마리와 돼지 331만 마리 등 총 347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보상금 및 방역비용으로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그 여파로 한우와 양돈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피해를 벌써 잊은 듯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의지가 느슨해진 분위기다.

축산농가에서는 식육부진·유산·폐사 등

백신 접종률의 부작용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접종시 우제류 가족은 면역력이 감소되어 심각한 구제역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중국·베트남과 같은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로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셋째 냉장상태의 백신은 접종 30분 전에 꺼내 8도 이상 실온에서 따뜻하게 유지한 후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하고, 넷째 주사기는 1두 1침을 사용하여 집근으로 인해 주사부위가 굵지 않도록 접종하는 것은 물론, 다섯째 접종 별 적정 접종량(소·돼지·사슴은 2ml/두, 염소는 1ml/두)을 목덜미 근육 부위에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백신 접종 결과는 최고기 이력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사육규모에 따라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사슴 사육 농가는 자가 접종 후 자가 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 후 자가 접종을 해야 한다.

자가 접종시 축산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을 보관하고 접종해야 가족의 백신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항체가 잘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올바른 백신 보관과 접종법을 살펴보면, 첫째 반드시 2~8도에 냉장 보관하며 얼지 않도록 하고, 둘째 한번 개봉한 예방약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셋째 냉장상태의 백신은 접종 30분 전에 꺼내 8도 이상 실온에서 따뜻하게 유지한 후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하고, 넷째 주사기는 1두 1침을 사용하여 집근으로 인해 주사부위가 굵지 않도록 접종하는 것은 물론, 다섯째 접종 별 적정 접종량(소·돼지·사슴은 2ml/두, 염소는 1ml/두)을 목덜미 근육 부위에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백신 접종 결과는 최고기 이력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사육규모에 따라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사슴 사육 농가는 자가 접종 후 반드시 읍·면담당자에게 접종일자·접종자·접종개체번호를 알려

주어야 하고 축협에서 약품을 구입한 소 50두 이상 농가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백신 구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백신 접종 결과를 쇠고기 이력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 결과가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거래 및 도축이 불가능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전정과도 같다. 국방이 튼튼하면 전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듯, 백신 접종을 통해 가족의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소독과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한 해외 여행자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방역을 튼튼히 한다면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살마 발생하겠어?’ ‘나 하나쯤이야’ ‘귀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오랜 구제역 청정국이었던 대만이 일부 농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이제는 구제역 상재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경우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관광버스안 위험한 춤판 어른들 정신차림시다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도로에서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관광버스가 달리는 것을 자주 본다. 하지만 관광버스나 학생들 수학여행을 운송하는 수학여행단 버스의 기러기때 운행 방식은 항상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대로이다.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10대 정도의 수학여행단 버스가 줄지어 순행하는 기러기때 주행을 목격했다. 가을맞이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였는데 제발 아무 탈 없이 수학여행을 마쳤으면 하는 마

음만 가졌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몇 시간 뒤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이번에는 다른 행락객을 태운 어른들의 관광여행 버스 2대를 보았는데 그 안에서는 춤판이 벌어졌다.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차창 밖으로 쿵 쿵거리리는 음악소리가 차창을 열고 달리는 우리 승차 안에까지 들렸다.

가을철이라 놀러 나온듯한데 그렇게 차 안에 서서 음악을 틀고 춤추고 하는데도 그

걸 제지해야 하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들 안전 불감증이나, 그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춤추며 노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서있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건 불문가지다. 이게 국도로 고속도로에서도 서서 춤출 경우 만약 차가 급정거를 하면 그대로 어디엔가 부닥치며 큰 부상을 당할 것이다. 그나마 급정거면 다행이지만 정말 운 없게 지방의 산악지역 국도에서 차가 미끄러지거나 구르거나라도 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인명사고가 날 것이다.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있어도 심각한 인명피해가 날 텐데 서서 노는 와중에 차가 비탈길로 굴렀다고 가정해보자.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거나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라는 관광객들의 안전불감증과, 그걸 제지하면 그 관광객들은 다시는 안 탄다고 하니 운전기사가 이를 제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 이런 안전불감증은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無 等 鼓

지난 2005년 개봉된 영화 ‘세상에 가장 빠른 인디언’의 주인공(안소니 홉킨스 역)은 황혼의 노인이다. 그는 1920년산 낡은 ‘인디언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미국 유타주 보너빌(Bonneville) 소금평원을 달리겠다는 꿈을 키운다.

그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향한다. 그렇지만 어렵사리 현지에 도착해 보니 사전 선수등록이 안된데다 오토바이 안전점사 등을 이유로 대회 참가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하지만 주인공의 열정 에 감동한 이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그는 20여년간 손보며 성능을 끌어 올린 오토바이를 타고, 마침내 질주한다.

이 영화는 뉴질랜드 오토바이 레이서인 버트 먼로(1899~1978)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보너빌 대회에 10번이나 참가했고, 3차례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그는 68세 때인 1967년에 47년 된 오토바이로 -1000 cc 이하 세계기록(시속 305.89km)을 세웠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포틀러 원(F1) 황제’로 불리는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페텔은 지난 6일 열망에서 열린 시즌 14라운드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1시14분3초711로 우승한데 이어 13일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 일본 그랑프리도 제패했다.

페텔은 올해 열린 15개 대회 가운데 9승을 휩쓸며 4년 연속 F1 그랑프리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토바이야, F1 레이스는 인간의 질주본능을 토대로 한 스포츠다. 어쩌면 이러한 본능이 현재의 문명과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스포츠의 기록경신(更新)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머신’을 몰고 F1레이싱 서킷을 질주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한국인 드라이버의 모습을 보고 싶다.

영화 속에서 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때로는 평생을 사는 것보다 5분을 빠르게 달리는 것이 더 소중한 때가 있다.”

/송기춘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평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 화 회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미 케팅 부 2200-661 (F A X 227-9600) (F A X 220-551) 디 지 인 실 2200-536 사 율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2200-663 체 육 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